

3월의 기도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6.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큰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야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DCEM 성회안내

2017년 5월 31일, 6월 1일 양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Empowered 21성회에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께서 주강사로 초청되어 말씀을 증거하실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오사카 순복음교회 (정대원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박예림,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목사),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오주봉, 정경자, 한사랑순복음교회 (박유성목사),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천지를 진동시키는 감사의 힘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궁핍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자는 가난과 질병을 쫓아내고 큰 복을 받는다”고 말했으며,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질병이 쫓겨난다”고 말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거룩한 감사 절기를 기쁨으로 드릴 때 자손을 축복하시고 장막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탐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좋을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나쁠 때에도 감사하면 모든 일이 협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행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그들의 감사 기도에 옥터가 뒤흔들리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며, 묵인 죄수들이 다 풀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밤중에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심신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피투성이가 된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한밤중 내가 있는 처소를 뒤흔들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밤중에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이 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기쁘게 받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환난 날에도 기도가 잘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순복음야마토교회 선교20주년기념 축복성회를 기다리며

1997년 순복음요코하마교회 자마지교회로 시작
DCEM 총재 조용기목사 초청 선교20주년기념 축복성회개회



오는 20일은 DCEM총재 조용기목사를 초청하여 순복음야마토교회(가나가와현 야마토시 소재)에서 축복성회를 개최하는 날이다.

일본 야마토는 혼슈 가나가와현에 있는 도시이다. 1942년 해군 공장(工廠)과 해군 항공대가 설치되어 발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생활했다. 1950년부터는 공장을 유치해 이스즈 자동차, 일본 IBM 공장 등이 들어와서 내륙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곳에 순복음야마토교회가 설립된 것은 20년 전으로 현재 담임을 맡고 있는 우창희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창립됐다. 우창희 목사는 40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로 6년간 교구 사역을 담당했다. 그러다 1997년 일본 순복음요코하마교회의 자마지교회로 파송 받아 일본으로 떠났다.

자마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미군 남편을 둔 한국 여성들이었다. 순복음요코하마교회로 한 두명씩 예배를 드리러 오다 그 수가 늘면서 성도들은 부대안에 예배모임을 만들고 요코하마순복음교회에 교역자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자마지교회다. 1997년 2월 우창희 목

사는 이 교회 담당으로 부임해 한국 여성들과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 애를 썼다. 여성들은 교회 일에 열심이었고, 그들을 주축으로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자마지교회는 독립되어 순복음자마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의 영역을 넓히게 되었다. 담임 목사로 취임한 우창희 목사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교회부지를 부대 밖으로 옮길 계획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야마토로 성전을 옮긴 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교회 초창기 성도였던 미군 아내들 중 일부가 남편을 따라 타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나머지는 새교회까지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운 때문에 교회 성도는 자연스럽게 새 멤버로 교체되기 시작했다.

우창희 목사는 1998년 12월, 교회 이름을 순복음야마토교회로 변경하고 일본인 일천만 구령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갔다. 그러자 교회는 또 다시 부흥해 지금은 4층 건물을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예배와 친교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역동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

우창희 목사는 “일본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다. 10명으로 시작된 성도

수는 사역 2년만에 50~60명으로 부흥됐다. 그러나 이후 성도수가 늘지 않는 등 교회가 정체되어 심적 고통이 컸다. 그 때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야마토교회를 방문해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정확히 1년 뒤 교회는 놀랍게도 성도 100명으로 늘어났다. 교회 안에서는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오는 3월 20일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다시 야마토순복음교회를 방문하여 선교20주년기념 축복성회를 인도할 예정이다. 이번 축복성회는 DCEM 주관, 순복음야마토교회 주최로 열리는 성회로서 담임 우창희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방문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창희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지금 역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레마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저는 일본 일천만 구령을 위해 헌신할 것이고, 교회 성도들 역시 일본 복음화를 기도하며 위해 계속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 일본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권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배나 많이 받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도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부부싸움을 한번 해본 사람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면 돌아오는 말은 더 독한 말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화가 오고 가는 동안 비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주의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말을 잘 사용하는 것 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 잘 이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1.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창조주를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주는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 오세

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는데, 아브람이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의 간증을 들어 보면 그는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처럼 자기에게 다가와서 믿음을 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천둥이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창조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놓고 이를 따라서 창조하며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계시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옷 입고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게 만들어 주셨으며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말씀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로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L. 무디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얻어서 우리 지식을 쌓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말씀을 읽으면 용기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 꿈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이 변화를 받고, 삶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꿈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을 성경을 읽었다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꿈을 주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꿈을 얻으면 꿈이 믿음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꿈을 이루어 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되며, 말씀이 주는 믿음을 마음에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데도다”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는 영도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뜻을 성경을 읽어서 깨달아 알고 미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따라서 기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음동경교회40주년



한국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교세가 미비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적 불모지인 일본. 그러한 일본에서 순복음동경교회의 태동은, 고(故) 최자실 목사가, 미국 어셈블리교단 동양선교부장으로 부터 동경 행 왕복항공권을 선물 받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양 목적으로 선물 받았던 항공권이었지만, 최자실목사는 약 40일간 일본에 머물면서 선교집회를 인도하고, 일본 선교 비전을 불태우기 시작하였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자실목사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던 고(故) 강은순 권사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조용기목사의 일본에서의 첫 부흥 성회를 계기로, 세 가정의 성도가 강권사 집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후, 아자부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옆 작은 가정집을 거쳐, 1979년 12월에 동경 요츠야에 교회당을 마련 해 가정예배로 시작된 모임은 순복음동경교회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지만 교세가 미비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적 불모지인 일본. 그러한 일본에서 순복음동경교회의 태동은, 고(故) 최자실 목사가, 미국 어셈블리교단 동양선교부장으로 부터 동경 행 왕복항공권을 선물 받은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휴양 목적으로 선물 받았던 항공권이었지만, 최자실목사는 약 40일간 일본에 머물면서 선교집회를 인도하고, 일본 선교 비전을 불태우기 시작하였다. 이 열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자실목사의 절친한 친구의 딸이었던 고(故) 강은순 권사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조용기목사의 일본에서의 첫 부흥 성회를 계기로, 세 가정의 성도가 강권사 집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후, 아자부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옆 작은 가정집을 거쳐, 1979년 12월에 동경 요츠야에 교회당을 마련 해 가정예배로 시작된 모임은 순복음동경교회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순복음동경교회는 시가키 시계마사 담임목사와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주일에 배 3000명 출석이라는 5개년 목표를 가지고 ‘말씀, 찬송,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인 시가키 담임목사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순복음동경교회가 부흥했다. 앞으로 순복음동경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발전할 계획이다. 한인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엔진이다. 엔진의 힘찬 추

일본 복음화라는 조용기 목사의 생각과 믿음이 일본에 110명의 선교사를 파송 했고, 일본 전역에 70개 교회를 개척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전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일본 선교를 위해 동경에 일본 풀 가스펠 신학대학을 설립하여 신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의 해외성회 기구인 일본 DCEM도 이곳에 위치해 있다.

현재 순복음동경교회는 시가키 시계마사 담임목사와 20여 명의 교역자들이 주일에 배 3000명 출석이라는 5개년 목표를 가지고 ‘말씀, 찬송, 기도가 넘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인 시가키 담임목사는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의 헌신으로 순복음동경교회가 부흥했다. 앞으로 순복음동경교회는 선교 중심의 교회로 발전할 계획이다. 한인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엔진이다. 엔진의 힘찬 추

진력을 바탕으로 일본인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인 지구역장을 양성하고, 많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본교회와 힘을 합쳐 일본 일천만 구령운동의 비전을 공유해 일본교회가 벤치마킹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최근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모든 예배는 3개 국어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어 예배가 따로 드려지고 있으며, 남녀선교회를 비롯한 봉사기관에도 3개국의 성도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일본을 넘어 중국 선교를 위한 아시아 부흥의 리더로서 비전을 꿈꾸고 있다. 나아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바탕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순복음동경교회는 이제까지 많은 고난을 경험했지만, 조용기목사를 시작으로 역대 담임목사들, 교역자들의 말씀과 기도, 전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극복해 왔다. 이와 같은 충성된 발걸음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에 이어져, 순복음동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본 선교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